

여자 핸드볼 대표팀, 본격적인 올림픽 체제 돌입

광주도시공사 서아루 등 22명 선수촌 입촌... 부상여부 체크 후 명단 확정 구기종목 유일 파리올림픽 출전... 세계 2~4위 팀과 A조 뒤편 난항 예상

여자핸드볼 대표팀이 파리 올림픽을 위한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한다. 광주도시공사 레프트윙 서아루도 여자핸드볼 대표팀에 소집돼 파리행을 노린다. 서아루를 포함한 22명의 대표팀은 오는 13일부터 진천 선수촌에 입촌해 올림픽을 위한 담금질에 들어간다. 지난 4월 29일 핸드볼 H리그 일정을 모두 마친 여자 국가대표 선수들은 2주정도의 휴식기를 가진 뒤 입촌과 동시에 훈련 일정을 소화한다. 대한핸드볼협회는 현재 서아루를 포함해 선발된 22명의 선수를 대상으로, 부상여부 등을 파악한 뒤 전체 명단을 확정짓고 공개할 계획이다. 핸드볼 대표팀의 지휘봉을 쥐고 있는 헨리크 시그널(스웨덴)감독은 12일 스웨덴에서 한국으로 입국해 대표팀 선수들과 만날 계획이다.

한국 여자핸드볼 대표팀은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는 유일한 우리나라 단체 구기 종목 팀이다. 축구, 농구, 배구 등 다른 단체 구기 종목은 모두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앞서 여자 핸드볼은 지난해 8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아시아 예선 마지막 4차전에서 일본을 꺾으며 11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이뤄냈다. 한국 여자 핸드볼의 파리 올림픽 본선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편성 결과 한국은 지난해 세계선수권 2~4위 팀들인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와 함께 A조에 뒤편이 됐다. 한국 여자 핸드볼이 올림픽 메달을 딴 최근 사례는 2008년 베이징 동메달, 4강은 2012년 런던 대회 4위가 마지막이다.

대표팀은 진천에서 연습을 이어가다 훈련 및 테스트시합 등의 자체 평가를 거쳐 유럽 전지훈련을 떠날 18명을 따로 선발한다. 선발된 18명의 선수는 6월 2일 스웨덴과 노르웨이로 전지훈련을 떠난다. 대표팀은 유럽 현지 적응 및 연습 경기 등을 통해 컨디션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대표팀으로서 진천으로 가게 된 서아루는 파리로 가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서아루는 "자신감 넘치는 경기를 하자는 다짐을 많이 한다. 몸을 열심히 만들어서 보강할 계획이다. 수비면에서도 공격면에서도 부족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꼭 올림픽에 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원래 작년 수술했던 오른쪽 무릎의 편을 이번 시즌이 끝나면 제거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대표팀의 부름을 받고 수술 일정을 다음으로 미뤘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여자핸드볼 광주도시공사 서아루가 핸드볼 대표팀에 이름을 올리며 파리행을 노린다. 사진은 서아루가 지난 3월 17일 삼척시청과의 경기에서 슈팅을 날리고 있는 모습. <한국핸드볼연맹 제공>

올림픽 준비 이상 무...우상혁, 5월 국내외 실전에서 2m37 도전

홍콩서 올림픽 메달 플랜 준비 내일 KBS배 육상 높이뛰기 출전

'스마일 점퍼' 우상혁(28·용인시청)이 약 40일 동안의 홍콩 훈련을 마치고 귀국했다. 5월에는 실전을 통해 훈련 성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3월 18일 홍콩으로 출국한 우상혁은 4월 30일 이후 늦게 귀국했다. 파리 올림픽 결선이 열리는 8월 11일에 신체 시계를 맞춘 우상혁은 5월에는 국내외에서 실전을 치르며 추진력을 키운다. 실외 시즌 첫 경기는 국내에서 치른다. 우상혁은 3일 경북 예천스타디움에서 벌이는 제52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 남자 높이뛰기 대학·일반부 경기에 출전한다. 그는 2월과 3월 총 4번의 실내 대회에 출전했다. 2월 11일 체코 후스토페체(2m33)에서 2위를 한 우상혁은 2월 14일 슬로바키아 반스카비스트리차(2m32), 21일 체코 네흐비즈디 대회(2m30)에서는 정상에 올랐다. 올해 실내 시즌 마지막 대회였던 3월 3일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세계실내선수권대회(2m28)에서는 3위를 했다. 이후 우상혁은 한국과 홍콩에서 훈련을 이어갔고 5월부터 실외 경기에 나선다. KBS배에서 시즌 첫 실외 경기를 치른 뒤 우상혁은 카타르 도하로 떠난다. '현역 최고 점퍼' 무타즈 예사 바르심(32·카타르)은 카타르육상연맹과 손잡고 9일 도하 카타르 원형극장에서 '왓 그라비티 챌린지'(What Gravity Challenge)를 개최한다. 바르심은 "남자 높이뛰기 세계 상위 12명이 뛰는 대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했고, 실제 세계 무대를 호령하는 점퍼들이 바르심의 초대에 응했다. 왓 그라비티 챌린지 출전 명단은 '올림픽 결선'과 견줘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화려하다. 현재 세계 육상 남자 높이뛰기 '빅4'로 분류되는 바르심, 우상혁, 장마르코 탬베리(이탈리아), 주벤 해리슨(미국)이 모두 이 대회에 나선다. '빅4' 외에도 올해 세계실내선수권에서 우승한 해미시 커(뉴질랜드), 2022 유진 세계선수권 3위 안드리 프로렌코(우크라이나) 등 파리 올림픽에서 북병으로 꼽힐만한 정상급 선수들도 출전한다. 우상혁에게는 올해 파리 올림픽에서 메달 색을 놓고 경쟁할 선수들의 '현재 몸 상태'를 확인할 좋은 기회다. 19일에는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2024 세이코 골



'스마일 점퍼' 우상혁이 15일 오전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파리 올림픽 대비 훈련을 하고 있다.

든그랑프리에 출전해 대회 2연패를 노린다. 우상혁은 순위만큼이나 2m37 달성에도 욕심을 낸다. 2m37은 육상 메이저대회 우승을 장담할 수 있는 높이다. 2019년 도하 세계선수권(바르심), 2021년 도쿄 올림픽(바르심·탐베리 공동 우승), 2022년 유진 세계선수권(바르심) 1위 기록도 2m37이었다. 2023년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에서는 탐베리가 2m36으로 우승했다. 우상혁은 파리 올림픽에서 자신이 보유한 한국 기록 2m36보다 1cm 높은 2m37을 넘어 금메달을 목에 거는 짜릿한 상상을 한다. 우상혁은 5월에 3개 이상 대회에 출전하며 2m37 도전을 이어간다. /연합뉴스

김민재 동점골 헌납...뮌헨, 홈에서 레알과 2-2 무승부

UEFA 챔스 준결승 1차전

독일 프로축구 바이에른 뮌헨이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와의 2023-2024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준결승 1차전에서 비겼다. 뮌헨에서 뛰는 한국 대표팀의 '철기둥' 김민재는 모처럼 선발 출전했으나 막판 동점골로 이어진 페널티킥을 내줬다. 뮌헨은 1일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준결승 1차전에서 해리 케인의 페널티킥 골로 역전승을 거두는 듯했으나 후반 38분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에게 페널티킥 동점골을 내줘 2-2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다. 뮌헨과 레알 마드리드는 오는 9일 오전 4시 스페인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치러지는 2차전에서 결승행 주인공을 가린다. 레알 마드리드는 뮌헨 상대 UCL 최근 8경기 연속 무패(6승 2무)를 기록하며 '천적' 관계를 이어갔다. 뮌헨이 이 대회 레알 마드리드와 맞대결에서 승리한 건 2011-2012시즌 대회 준결승 1차전(2-1 승)이 마지막으로, 12년 전 일이다. 후반가 들어 주전에서 밀렸던 김민재는 마테이

스 더리히트의 부상으로 모처럼 선발 출장했다. 김민재가 UCL에서 선발로 나선 건 라치오(이탈리아)와 16강 1차전 이후 2달, 4경기 만이다. 공식전 기준으로는 59분을 소화한 지난달 21일 유니온 베를린과 분데스리가 경기 뒤 2경기 만이다. 김민재는 뮌헨이 2-1 앞서던 후반 37분 비니시우스의 패스를 받으려던 호드리구를 잡아채며 발로 걸어 넘어뜨리는 명백한 파울을 범해 페널티킥을 내주며 옐로카드를 받았다. 비니시우스는 침착하게 페널티킥을 성공시켜 2-2 무승부를 만들었다. 비니시우스는 레알 마드리드의 선제골도 책임져 멀티골을 기록했다. 앞서 전반 24분 토니 크로스가 후반에서 한 번에 찔러준 침투패스를 빠른 스피드로 잡더니 오른발 땅볼 슈팅을 날려 득점했다. 뮌헨은 레오이 자네가 골 지역 오른쪽에서 날린 강슛으로 후반 8분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더니 4분 뒤에는 저말 무시알라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케인이 역전골로 마무리 지어 승부를 뒤집었다. 뮌헨이 12년 만의 맞대결 승리를 거두는 듯하던 분위기는 김민재의 파울에 다시 뒤바뀌고 말았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년 광주상설공연(5월)
 일시 : 2024-05-04(토) ~ 2024-05-26(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광주시립발레단 제137회 정기공연 「DIVINE」
 일시 : 2024-05-24(금) ~ 2024-05-25(토)
 05.24.(금) 19:30
 05.25.(토) 15:00, 19: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415-5502 / 062-522-8716